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와 제안[1)]

■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관한 평가 결과, 많은 부문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몇몇 부문에서는 시장 왜곡, 재정투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부문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

정책 방향	효과성	효과를 제한한 주요한 원인
교통 및 자유 이동	높음	• 없음.
경쟁	중간	• 단일 시장 내 왜곡 발생 가능성 • 정부 보조금(state aids)으로 인한 문제
식품 안전	높음	• 없음.
공동농업정책 적용의 유연성	높음	• 회원국별 지원으로 인한 몇몇 문제 발생
EAFRD 하의 예외적 일시 지원 정책	높음	• 없음.
공동시장 경쟁 법안의 개정	낮음	• 실제적 활용에 대한 지식 부족 • 합의와 결정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족
일시적 사적 저장 지원	낮음	• 제한된 범위 및 재정 • 과도한 행정력 필요
와인 부분 특별 지원	낮음	• 불평등하고 적절하지 않은 국가 정책과 재정투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발생 • 고품질 와인 생산 및 지리적 특성에 반하는 조기 수확 제도 • 팬데믹 기간 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부족
채소 및 과일 부문 특별 지원	높음	• 없음.
특정 농업 부문에 대한 홍보 지원	높음	• 없음.

■ 2021년부터의 유럽연합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과 공동농업협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음.

1) 유럽의회조사처의 “European agriculture: a sector-based analysis of food systems and market resilience”(2021.5.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 **(식량 비축)** 공동농업정책(CAP) 2014-2020 기간 동안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여 총 28억 유로가 7년간 사용됨. 미래에는 이러한 식량 비축이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직불금제도와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AP 2021-2027에서도 식량 비축 정책에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음.

- **(공동농업협정의 제한된 역할)**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 2021-2027에 따르면,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이 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미래에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변화된 소비 패턴 반영)**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했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푸드뱅크 등을 통한 식품 지원과 값싼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속적이고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됨.

|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 제안 |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식품 시스템적 접근	• 미래의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식품 공급 사슬의 전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장 관리 정책	• 시장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 식품 시장 운영자들이 미래의 식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
식량 비축(crisis reserve)	• 농가 직불금제도와 식량 비축 제도의 비연계(decoupling)는 위기 기간의 유럽연합의 재정적 가용성을 강화
정부 보조금(state aids)	• 국가 지원의 시장에 대한 중단기 효과가 경쟁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
연속적이고 적절한 식품 공급	•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 존재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유럽 농촌 개발정책의 영향과 도전[2)]

■ 농촌은 구조적 약점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2) 유럽연합위원회의 "Management plan 2021 –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21.3.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 농촌은 1,030만 개의 농가와 1억 5,700만 ha의 농지를 포함하며, 2,200만 명에게 농식품(농업, 식품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함.

- 인구감소, 높은 사회적 배제 및 빈곤율, 기초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음.

■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개발정책은 유럽농촌개발펀드(EAFRD)(1,000억 유로)와 회원국 재정 투입(총 610억 유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음.

- 농촌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고, 환경보호·자원 효율성 증대, 기후 변화 적응·피해 방지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에 투입된 공동농업협정 직불금은 약 5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보호함.

| 공동농업협정의 농촌개발 효과에 대한 평가 |

평가 기준	평가
효과성	• Pillar 1은 농가의 안정성 유지에, Pillar 2는 농촌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됨. • LEADER 프로그램은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효율성	• Pillar 2 정책은 행정적으로 복잡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혁신 가능성이 밝혀짐.
일관성	• Pillar 1과 Pillar 2는 일반적으로 각각 계획됨.
연관성	• 사회서비스, 마을 재생, 지역 개발 정책은 농촌의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게 진행됨, • 농가 지원에 비해 농촌개발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유럽의 부가가치	• 재정투입은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농가 위주로 정책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농촌의 쇠퇴를 막는 것에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공동농업협정에는 총 3,439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남.

- Pillar 1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2,586억 유로가, Pillar 2에는 778억 유로에 'Next Generation EU' 자금인 75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됨.

- 'Next Generation EU' 자금은 공동농업협정의 Pillar 2에 투입되는 자금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 7,500억 유로가 투입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됨.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되는 공동농업협정 재정은 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공동농업 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 사용될 것임.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공동농업협정이 EU 그린딜 목표 등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회원국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고용 문제)** 이탈리아의 낮은 농촌 고용률 및 높은 성별 격차, 불가리아의 교육 및 훈련 부족 문제, 포르투갈의 농촌 청년층의 낮은 직업 기회 등을 지적함.

- **(인구감소)**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소규모 마을로 구성된 농촌지역(Zeeland)은 특히,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더 큰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및 세대 재생)** 핀란드와 동부 독일의 농촌에서는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농촌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농업을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 보육, 교육, 의료 및 교통 서비스의 확충이 농촌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접근성)** 2025년까지 광대역 접근성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리스와 폴란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LEADER)**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 재정 구조 계획, 농촌 간 협력을 지원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